



김희경 전주대 한문교육과 동문, 발전기금 전달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 김희경 동문(82학번)이 대학 발전기금으로 400만원을 기탁했다. 26일 전주대에 따르면 이번 기부는 김희경 동문의 모교에 대한 깊은 애정과 후배들의 성장을 응원하는 마음을 담아 전달했다. 대학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된 발전기금 전달식에는 윤찬영 대외부총장, 소현성 교무처장, 백광호 평생교육원장 한문교육과 김형술 교수 등이 참석했다. 김희경 동문은 "저를 포함한 3명의 딸 모두 전주대학교 한문교육과를 졸업해 현재 한문교사로 소명을 다하고 있다"며 "발전기금은 모교에 대한 감사의 마음과 후배들을 위한 자그마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윤찬영 대외부총장은 "졸업생들의 관심과 애정이 모여 전주대학교가 더욱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은성기자



남원 금등, 평생학습센터 자치사랑방 프로그램 개강

남원시 금등은 평생학습센터 자치사랑방 프로그램으로 주민들의 배움과 성장 지원을 위해 2월 24일 개강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편성 요청한 라인댄스 프로그램을 포함한 총 10개 과목에 약 300여명의 수강생들이 배움과 문화생활 위해 참여하게 된다. 특히, 이번에 신규 편성된 찾아가는 자치사랑방 '희희낙락 경로당 프로그램'은 신규 회원 유입 및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위해 직접 경로당을 방문 노래와 공감토크 등을 통해 외로운 어르신들을 위로하는 공간·힐링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고립감을 해소해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김제시 요촌동,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 개최

김제시 요촌동 행정복지센터는 26일 요촌동 기관·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덕암고등학교 김형수 교장을 비롯해 20여명의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시가 추진하는 주요사업 현안 사업들을 공유했으며, 2036 하계 올림픽 성공기원을 다짐하는 활동도 함께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관·사회단체장들은 요촌동을 김제의 중심지로 다시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였으며, 다양한 의견들을 제시하는 시간으로 이어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전북은행, 진안군에 선물꾸러미 100박스 전달

전북은행은 지난 26일 지역사회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300만 원 상당의 선물꾸러미 100박스를 진안군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지역 내 소외계층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진안군청에서 진행된 전달식에는 전북은행 부행장 전상익, 주영환 진안부군수 등이 참석했다. 기부된 선물꾸러미는 햇반, 라면, 생필품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군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소외된 이웃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지역소멸 위기, 모두가 힘 모아야 할때

진안군 안전면, 기관사회단체장 인구감소 대응 방안 논의

진안군 안전면(면장 차재철)은 26일 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올해 첫 기관사회단체장 회의를 개최하고 당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회의에는 안전면장을 비롯한 24명의 기관사회단체장이 참석해 인구감소, 지역경제 침체 등 지역소멸의 위기를 함께 고민하고,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위기를 시작으로 장·단기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세부사항으로는 △첫번째, 안전면 알리기'로 안전면만의 특성과 우수성을 적극 홍보하여 외부 인구의 관심을 끌어내는 활동을 강화, △두 번째, 안전초중고만의 차별화 전략 수립과 농촌 유학생을 유치, 귀농귀촌 정착여건을 개선으로 인구 늘리기, △세 번째, 방문객 유치에 위한 면 소재지 활성화'로 아름답고 깨끗한 소재지를 조성하고 안전면 상징 조형물 설치, 특색 있는 마을 조성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 증대, △네 번째,



현재 추진중인 주택단지 부지 조성 과 주택공급을 확대방안 마련으로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 등이다. 차재철 면장은 "인구감소 문제는 지역의 미래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단계별로 차근차근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각 기관단체와 면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남원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 결과 의결

남원시는 26일,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의를 개최해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4년 연차별 시행 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기반한 1년 단위 계획으로, 일과 삶이 조화로운 도시 남원을 목표로 8개의 추진 전략 및 47개의 세부 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건강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등 사회보장 분야 전반에 걸쳐 사업을 추진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가 지난해 추진한 세부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민관협력 정도, 시행 과정의 적정성, 시행 결과의 우수성 등을 고려해 △120 민원봉사대 운영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든든수당 지원 △장애인 및 어르신 전통



보장구 안심보험 가입지원 3개 사업을 우수사업으로 선정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정읍 농축협, 고향사랑기부금 4000만원씩 상호 기부

고창군과 정읍시 지역 농축협 조합장들과 시군지부장들이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고창군 2층상활실에서 심덕섭 고창군수와 이정환 농협중앙회 전북본부 총괄본부장, 김성훈 NH농협은행 전북본부장, 이미정 고창군지부장, 김순기 정읍시지부장과 12개 농축협 조합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고창군과 정읍시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 상생 발전을 도모하고, 나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양 지역 농축협조합 임직원들이 솔선수범하여 400명씩 참여, 각 4000만원씩 상호 기부하여 더욱 의미가 깊었다. 고향사랑기부제 상호 기부에 참여한 곳은 고창 선운산,



해리, 대성, 흥덕농협, 고창부안축협과 NH농협 고창군지부 등 7개 농축협과 정읍의 정읍, 샘골 태인, 황토현, 신태인 농협, 정읍완예농협, 순정축협, NH농협정읍시지부 등 8개 조합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구천동농협, 조합원자녀 대학 진학 장학금 전달

구천동농협(조합장 김성곤)은 본점 2층 회의실에서 조합원 자녀 중 전북지역 내 고등학교 출신 대학 진학 학생 13명에게 이천유백만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구천동농협 김성곤 조합장은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조합원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매년 조합원 자녀 대학 진학 장학금을 지원 조합원의 자녀들이 건강하게 농업·농촌의 발전을 이끄는 우수한 인재로 성장해 주길 바란다"며 조합원들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정읍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촉진 맞춤형 컨설팅

정읍시가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활성화를 위해 부서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며 20우선구매 목표 달성을 위한 준비에 나섰다. 시는 26일 주요 12개 부서 회계 담당자를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물 구매 촉진을 위한 맞춤형 1:1 컨설팅'을 진행했다. 이번 컨설팅은 중증장애인생산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우선구매 활성화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컨설팅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생산물판매시설과 협력해 서별 예산서를 분석하고 각 부서의 특성에 맞는 구매 품목과 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를 통해 부서별 구매 실적을 높이고 실질적인 우선구매 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 국회 교육위원장상 수상

국립군산대학교(총장 이장호) 사회봉사센터는 26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리는 '2025 대한민국 녹색기후상' 시상식에서 교육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15회째를 맞이한 대한민국 녹색기후상은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2010년에 제정된 국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종합 시상이다. 국회 기후변화포럼은 7개 부문에 걸쳐 총 139건의 응모를 접수받아 예심과 본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수상자를 선정했으며 그 중 국립군산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교육부문 우수상인 국회 교육위원장상을 수상했다.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은 "군산의 지역적 특색을 살린 기후 대응 프로그램이 창의성 및 지속가능성 측면을 돋보였다"고 심사평을 전했다.

/군산=이재춘 기자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원탁토론회 참가자 모집

남원시는 아동과 시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아동이 더 행복한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시민참여 원탁토론회' 참가자를 다음 달 1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3월 15일(토)에 개최되며, 모집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아동·청소년 70명과 보호자 20명, 아동관계자 10명 등 총 100여 명이다. 이번 원탁토론회는 아동친화도시의 6개 주요 영역을 주제로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놀이와 문화 △참여와 존중 △안전과 보호 △보건과 복지 △교육환경 △가정환경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하고, 이를 남원시 아동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추진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남원시청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친화팀(☎ 063-620-6195)으로 하면 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 동충동 지사협, 착한가게 현판 전달

남원시 동충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협의체)는 26일, 1일 1가구 소통행정 일환으로, 관내 바우데 나주곰탕 남원점(사업주 김연주)에 착한가게 현판을 전달했다. 동충동은 1일 1가구 소통행정을 통해 관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모금된 기부금은 협의체 특화사업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착한가게는 매월 3만원 이상을 정기 기부하며 나눔을 실천하는 가게를 뜻한다. 나주곰탕 김연주 사업주는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운봉읍, '행복 전염 칭찬릴레이' 선보여

남원시 운봉읍(읍장 이은주)이 관내 기관단체 및 주민들의 공익적 활동을 소개하는 '운봉읍 행복 전염 칭찬릴레이' (이하 칭찬 릴레이)를 2025년 운봉읍 시책으로 선보였다. 칭찬 릴레이는 긍정적이고 서로 화합하는 읍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읍 시책으로, 매월 타의 모범이 되는 칭찬 대상 1인을 선정해 칭찬증서를 수여하고 공헌 활동을 주변에 소개, 관내 공익 활동을 장려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다. 올해 첫 칭찬 주인공은 서하마을 이재진 씨로, 읍사무소 방문 민원인의 편의와 소재지인 마을주민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이고 신속한 제설 작업으로 안전하고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에 노력한 점이 선정 이유이다.

/남원=김기두 기자